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범위-빈도 모형의 적용

전우영 ·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과 그 집단의 성원인 개인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집단의 성적의 평균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이 하위에 있는 집단보다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이 상위에 있는 집단-을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회 비교 유형에 따라 달라졌다.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 동화되었다. 시험점수가 동일한 학생이라도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였다.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와 대비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시험점수가 동일한 학생이라도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성적이 중간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들어맞았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고정관념, 평가,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 인지적인 접근은 고정관념을 집단과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인 구조로 간주한다(Hamilton, Stroessner, & Driscoll, 1994, pp. 298). 따라서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 인지적인 접근의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이러한 인지적인 구조가 사회, 경제적인 원인과는 독립적으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Hamilton & Gifford, 1976; Taylor, 1981).

집단 대표 정보의 효과

고정관념의 형성에 대한 사회 인지적인 접근 중의

하나를 전우영과 이훈구(1992)의 집단 대표 정보의 효과에 대한 가정이다. 이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이하 집단 대표 정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긍정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정보보다 많은 두 집단에 대한 평가 시에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을 상대적으로 더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많은 두 집단에 대한 평가 시에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더 적은 집단을 상대적으로 더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다(전우영 · 이훈

구, 1992).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우영과 이훈구(1992)는 피험자들에게 네 집단 A, B, C, D 각각에 대한 정보로서, 각 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긍정적인 행동 8, 4, 1, 2개와 부정적인 행동 2, 1, 4, 8개를 제시하였다. 집단 A와 B는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이 4:1로 동일하게 바람직한 집단이었고, C와 D는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이 1:4로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이었다. 사람들이 그 집단 성원들이 행한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에 근거해서 집단에 대해 평가한다면 집단 A와 B에 대한 평가는 동일해야 하고, 집단 C와 D에 대한 평가도 같아야 한다. 그러나 집단 대표 정보에 기초해서 집단에 대해 평가한다면 A와 B를 대표하는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인데, A의 긍정적인 정보가 8개로 B의 긍정적인 정보인 4개보다 많기 때문에 A를 더 바람직한 집단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 C와 D를 대표하는 정보는 부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4개인 집단 C보다 8개인 집단 D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실험 결과는 집단 대표 정보의 효과에 대한 예상과 일치하였다. 즉, 피험자들은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의 비율에 근거하지 않고 각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에 근거해서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집단 대표 정보의 효과에 대한 전우영과 이훈구(1992)의 연구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의 양식에 따라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혀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집단에 대한 평가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이에 기초해서 그 집단의 성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밀바탕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바람직한 행동을 한 사람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에 대한 평가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대표 정보에 대한 가정의 설명력을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로 확장시키고자 Smith, Diener, 그리고 Wedell(1989)의 연구에서 이용한 범위-빈도 모형을 고정관념 연구에 적용하였다.

범위-빈도 모형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은 자극 자체의 절대적인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내의 자극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판단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입장 중의 하나가 범위-빈도 모형이다(Parducci, 1984). 범위-빈도 모형에 의하면 사람들은 맥락내의 자극대상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범위원리와 빈도원리라는 두 가지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한다.

범위원리는 사람들이 판단차원 상에서 자극대상보다 아래에 어느 정도의 범위가 존재하는가에 근거해서 자극대상을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Parducci, 1984; Smith, Diener, & Wedell, 1989). 자극대상이 분포내 범위의 최고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범위 값을 갖게 되고, 반대로 최소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낮은 범위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범위원리에 따르면 동일한 자극 대상일지라도 어떤 분포에 속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범위 값을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10kg을 8kg에서 18kg 사이에 드는 것보다 2kg에서 12kg 사이에 드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이다(Lim, 1995).

빈도원리는 판단차원 상에서 자극대상의 값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자극의 총 수의 비율이 얼마인가에 근거해서 자극대상을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Parducci, 1984; Smith, Diener, & Wedell, 1989). 분포내의 대다수의 자극들이 판단차원상에서 자극대상의 값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존재하는 경우보다 자극대상은 낮은 빈도 값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5kg에서 15kg의 범위에서 대부분 13-14kg만 들다가 10kg을 든 경우보다 대부분 6-7kg만 들다가

10kg을 든 경우에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Lim, 1995).

최종적인 판단은 주어진 상황에서 범위 값과 빈도 값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한 것이다.

집단에 대한 평가

범위-빈도 모형의 중요한 예언 중의 하나는 분포 전체에 대한 판단이 분포의 편포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Parducci, 1984; Smith et al., 1989). 분포내의 대다수의 자극들이 범위의 최소 값 근처에 몰려있는 경우(정적 편포)보다 최고 값 근처에 몰려있는 경우(부적 편포)에 분포 전체의 평균 값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kg에서 12kg 사이의 범위를 갖는 두 개 분포의 무게의 평균이 동일할지라도, 다수가 3kg에서 4kg 사이에 있는 경우(정적 편포)보다 10kg에서 11kg 사이에 있는 경우(부적 편포)에 더 무겁다고 느낀다는 것이다(Lim, 1995).

이러한 범위-빈도 모형의 가정은 고정관념의 형성을 설명하는 집단 대표 정보의 효과에 대한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일종의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어떤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고 들었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의 행동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를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의 행동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부적적으로 편포된 분포가 우리 머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mith 등(1989)의 연구에서 자극으로 사용했던 부적적으로 편포된 분포의 경우에는, 그 분포를 대표하는 대다수의 정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집단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는, 집단을 대표하는 대다수의 정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집단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평가

범위-빈도 모형에 의하면 분포 전체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분포내의 개별 자극의 값은, 두 분포의 점수 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부적적으로 편포된 분포보다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에서 더 높게 평가된다고 한다(Parducci, 1984; Smith et al., 1989). 예를 들면 A, B 두 개 분포의 편포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두 분포의 범위가 동일하다면 X라는 자극의 범위 값은 두 분포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X보다 아래에 있는 다른 자극들의 수는 부적적으로 편포된 분포(A)보다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B)에서 더 많게 된다. 따라서 X는 A분포보다 B분포에서 더 높은 빈도 값을 갖기 때문에 B분포에 있을 때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위-빈도 모형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과 각각의 사건이 포함된 분포 전체에 대한 판단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가정한다. 즉, 분포전체에 대해 평가할 때는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보다 부적적으로 편포된 분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건들은 부적적으로 편포된 분포에 속했을 때보다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에 속했을 때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위-빈도 모형의 가정을 고정관념 연구에 적용시키면 집단에 대한 평가와 집단내의 개인에 대한 평가가 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위-빈도 모형의 가정과 유사하게 Biernat, Manis, 그리고 Nelson(1991)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두 개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른 비교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사람들이 여성은 남성보다 전형적으로 자기 주장이 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위-빈도 모형의 가정과는 반대로 고정관념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이 어떤 집

단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에 속한 개인도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Sagar와 Schofield(1980)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흑인이 백인과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흑인의 행동이 백인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집단간 비교와 집단내 비교

범위-빈도 모형의 가정은 고정관념 연구에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제공해 주지만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한점이 생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범위-빈도 모형이 사회 비교의 한 가지 유형에만 주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회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나는 집단내 비교로서, 개인이 속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집단간 비교로서,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과 그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 모두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위-빈도 모형은 주로 하나의 집단 내에서 개인간의 비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Smith 등(1989)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분포 내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가 주 관심이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에게는 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범위-빈도 모형은 집단내 비교와 집단간 비교라는 사회 비교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집단내 비교를 주로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범위-빈도 모형에 기초해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예언하는 것은 집단내 비교의 경우에만 적절할 것이다.

범위-빈도 모형에 의하면, 집단내 비교 시에는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와 집단내의 개인에 대한 평가가 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집단내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와 대비될 것이다.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한 개

인은 그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와 대비되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의 대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내 비교 시에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한 개인보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한 개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이나 집단간 문제에 대한 연구들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비교 유형은, 두 개 이상의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비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집단간 비교이다. 따라서 고정관념 또는 집단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참여한 피험자는 두 개의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보통이다.

집단간 비교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범주화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범주화가 각 범주 내에서는 지각된 일치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범주간의 지각된 차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Doise, Deschamps, & Meyer, 1978; Tajfel & Wilkes, 1963). 두 집단을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의 특성은 더욱 비슷하게 보고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더욱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내 비교와는 달리, 집단간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 동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은 그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에 동화되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동화되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단간 비교 시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한 개인을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한 개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 험

본 연구에서는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가 각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에게 두 집단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도표화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시험 점수의 평균은 동일했지만 집단 대표 정보는 달랐다.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집단 대표 정보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두 집단의 시험 점수의 평균이 동일할지라도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을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보다 시험 성적이 더 좋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집단 간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에 동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집단 간 비교 시에는 시험 성적이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이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보다 성적은 더 좋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집단내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와 대비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집단내 비교 시에는 시험 성적이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 성적이 더 좋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방 법

피험자

연세대학교에서 개설된 「인간 행동의 심리적 이해」 수강생 중 106명이 피험자로 참가하였다. 이들 중 11명은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예: 39점)보다 낮은 사람(예: 29점)을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따

라서 이들은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피험자들은 각 조건에 무선할당했으며, 한 번에 12-15명씩 실험에 참가하였다.

자극재료

피험자에게는 그림 1과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그래프로 구성된 책자를 제시하였다. 모든 페이지에는 동일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평가해야 할 개인의 성적은, 노란 색 형광 펜으로 칠해서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제시하였다. 이 그래프는 대학생 집단의 중간 시험 성적을 도표화한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각 그래프의 상단에는 집단에 대한 명칭을 A 또는 B로 부여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 성적은 33점으로 동일했지만, 집단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이 집단의 평균 점수인 33점보다 상위에 있었다. 반대로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은 그림 2에서 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이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아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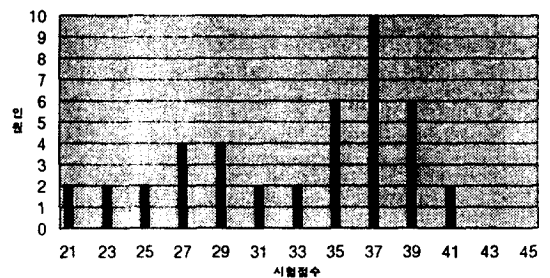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대표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점수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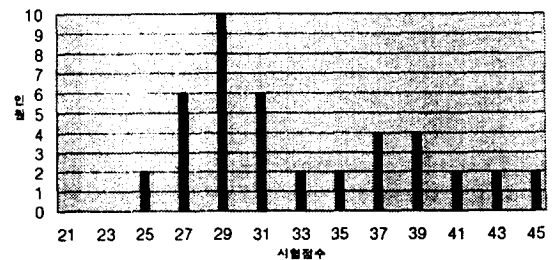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대표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점수분포

절 차

집단내 비교조건에서는 피험자에게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그래프나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그래프 중에서 하나만을 제시하였다.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 모두 집단 B라고 명명하였다. 집단간 비교조건에서는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그래프와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그래프를 모두 제시하였다. 각 집단은 A나 B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은 평가의 기준이 매우 명백한 시험점수였다. 따라서 두 집단에 속한 개인들 모두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면 피험자들이 집단 대표 정보나 사회 비교 유형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점수의 절대치에 의존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도 피험자들은 집단 B라고 명명한 하나의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의 피험자들은 집단 B에 대해서만 평가하였다.

집단내 비교조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시문을 주었다.

본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되는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처리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정보는 OO대학교 OO학과 학생들의 OO과목의 중간 시험 성적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학생들이지만 사적인 정보를 누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는 간단히 집단 B라고만 명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서 이 집단내의 학생 개인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예: 집단 B의 32점을 받은 학생의 성적은 얼마나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개별 학생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래프와 개별 학생의 점수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에 판단하기 바랍니다.

집단간 비교조건에서는 A, B 두 집단에 대한 그래

프가 주어진다는 것과 평가 시 두개의 전체적인 그래프와 개별 학생의 점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 이외에는 집단내 비교조건과 동일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 대표 점수 추정, 평균 추정의 네 가지 종속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개인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각 집단에 속한 11명의 개인의 성적(집단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점; 집단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점)이 얼마나 좋은 편인지에 대해 1(매우 나쁘다)에서 21(매우 좋다)에 이르는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얼마나 좋은 편인지에 대해 1(매우 나쁘다)에서 21(매우 좋다)에 이르는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되는 자료의 평균을 얼마나 잘 추정하고, 평균과 집단을 대표하는 점수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집단의 성적의 평균과 집단을 대표하는 점수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종속 측정의 순서는 개인 평가, 집단 평가, 대표 점수 추정, 평균 추정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본 연구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종속 측정치일수록 마지막에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결 과

집단에 대한 평가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집단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에 인원수를 가중치로 부여한 값들을 평균한 것이다.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표 1. 집단대표정보와 집단평가의 유형에 따른 집단에 대한 평가의 평균

집단 평가	집단대표정보	
	긍정적	부정적
전체 평가	13.94(2.06)	10.32(2.45)
개인 평가의 평균	11.64(.83)	10.86(.72)

()는 표준편차

위해서 2×2×2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집단에 대한 평가는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평가에 대한 사회 비교 유형의 주효과와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집단에 대한 평가는 사회 비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 대표 정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피험자들은 두 집단의 성적의 평균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평균=12.79)을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평균=10.59)보다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평가하였다, $F(1, 91)=70.07, p<.001$.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집단을 평가한 경우(평균=11.25)보다 집단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경우(평균=12.15)에 집단의 성적을 더 좋게 평가하였다, $F(1, 91)=12.61, p<.01$. 마지막으로 집단 대표 정보와 집단 평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91)=35.28, p<.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평균한 것보다, 집단 대표 정보의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대한 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평균한 경우보다 집단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F(1, 47)=52.06, p<.001$.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대한 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평균한 경우보다 집단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더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1, 46)=2.54, p=.118$.

집단에 대한 평균과 대표점수 추정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에 대한

평균과 대표점수의 두 가지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2×2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추정치의 종류는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추정치에 대한 사회 비교 유형의 주효과와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두 가지 추정치 상의 점수는 사회 비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두 가지 추정치는 모두 집단 대표 정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피험자들은 두 집단의 평균이 33점으로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평균=34.45)을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평균=31.82)보다 추정치 상의 점수가 더 높은 집단이라고 평가하였다. $F(1, 91)=115.76, p<.001$. 그리고 집단 대표 정보와 추정치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91)=28.76, p<.0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대표점수를 평균보다 낮게 추정하였고, $F(1, 46)=8.27, p<.01$,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서는 대표점수를 평균보다 높게 추정하였다, $F(1, 47)=22.85, p<.001$. 이는 피험자들이 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점수는 평균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지각하고,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집단을 대표하는 점수가 평균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집단대표정보와 추정치의 유형에 따른 집단에 대한 점수 추정의 평균

추 정 치	집단대표정보	
	긍정적	부정적
대표점수	35.08(1.07)	31.45(1.91)
평균점수	33.81(1.62)	32.19(1.19)

()는 표준편차

개인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 자극으로 제시한 도표에는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구성원들의 시험 점수는 25점에서 45점 사이에 있었고,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구성원들의 시험 점수는 21점에서 41점 사이에

있었다. 두 집단의 시험 성적이 동일한 개인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에는 두 집단의 시험 점수의 공통된 범위에 속하는 25, 27, 29, 31, 33, 35, 37, 39, 41점의 성적을 받은 9명의 개인에 대한 평가만을 비교하였다.

집단 대표 정보, 사회 비교 유형, 그리고 평가 대상의 시험 점수에 따라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 \times 2 \times 9$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평가 대상의 시험 점수는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표 정보, 비교 유형, 그리고 시험 점수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8, 728)=9.22, p<.001$.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집단간 비교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에 동화되고,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와 대비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삼원 상호작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비교조건 내에서 집단 대표 정보와 평가 대상의 시험 점수에 따라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집단 대표 정보와 평가 대상의 시험 점수로 이루어지는 2×9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대표 정보는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평가 대상의 시험 점수는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집단간 비교조건에서는 예상대로 집단 대표 정보의 주효과와, $F(1, 40)=15.79, p<.001$, 시험 점수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고, $F(8, 320)=536.10, p<.001$, 집단 대표 정보와 시험 점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한 개인을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한 개인보다 더 성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집단간 비교 시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에 동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집단 대표 정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대표 정보와 시험 점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8, 408)=2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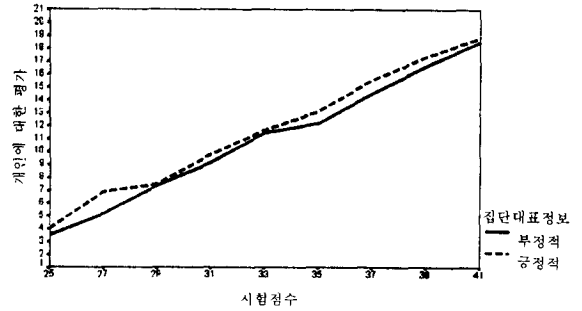


그림 3. 집단간 비교시 집단대표정보와 시험점수에 따른 개인에 대한 평가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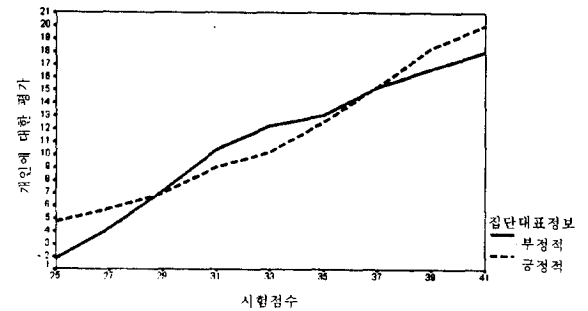


그림 4. 집단내 비교시 집단대표정보와 시험점수에 따른 개인에 대한 평가의 평균

$p<.001$, 시험 점수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고, $F(8, 408)=1044.52, p<.001$. 그림 4에서 보듯이 집단내 비교 조건에 대한 본 연구의 예언과 일치하게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한 개인을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한 개인보다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한 경우는 시험점수가, 29점보다 크거나 37점보다 작은, 중간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서 나타났다. 시험 점수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한 개인을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한 개인보다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논 의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집단에 대한 평가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집단간 비교 조건과 집단내 비교 조건 모두에

서 성적의 평균이 동일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이 상위에 있는 집단을 대다수의 학생들의 성적이 하위에 있는 집단보다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회 비교 유형에 따라 달라졌다. 집단간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 동화되었다. 즉, 시험점수가 동일한 학생이라도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하였다.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와 대비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시험점수가 동일한 학생이라도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에 속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성적이 중간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들어맞았고 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포의 범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범위는 25점에서 45점이었고, 긍정적인 집단의 범위는 21점에서 41점이었다. 집단간 비교조건에서는 두 집단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점수는 21점이고 제일 높은 점수는 45점이라는 기준이 두 집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집단내 비교 조건에서는 한 집단의 성적만을 보기 때문에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25점은 제일 낮은 성적으로 지각되고,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25점은 세 번째로 낮은 성적으로 지각된다. 따라서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25점이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25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표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41점은 세 번째로 높은 성적이었다고,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41점은 제일 높은 성적이었다. 따라서 대표 정보가 긍정적인 집단의 41점이 대표 정보가 부정적인 집단의 41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후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점수의 범위를 같게 만든 조건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고정관념, 평가,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연구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만약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면접관은,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들을 동시에 평가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능력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여성들만 면접을 실시하고 나중에 남성들만을 따로 면접한다면 오히려 능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여성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여성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문제에도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을 각 학교내 등수에 기초해서 평가한다면 성적이 동일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입시에 학교간의 학력 격차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동일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생각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성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Smith et al.(1989)의 연구는 만약 두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할 경우에 불행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 행복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보다 그 사건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Smith et al.(1989)의 가정은 각 개인이 타인과의 비교는 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의 비교만을 하는 경우에만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자신의 과거와 타인의 과거를 모두 고려한다면 Smith et al.(1989)의 가정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만약 자신의 과거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과거가 불행했다고 생

각하는 사람이 서로를 비교하는 경우는 집단간 비교의 조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가에 개별적인 사례가 동화된다. 즉,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새로운 사건이 동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두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과거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과거에 불행했던 사람보다 행복했던 사람이 그 사건을 더 행복한 것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참 고 문 헌

- 전우영 · 이훈구(1992).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집단 대표 정보량의 효과: 착각적 상관과 집단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 2, 94-108.
- Biernat, M., Manis, M., & Nelson, T. F.(1991). Stereotypes and standards of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85-499.
- Doise, W., Deschamps, J. C., & Meyer, G.(1978). The accentuation of intra-category similarities. In H. Tajfel(Eds.),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pp. 159-168). London: Academic Press.
- Hamilton, D. L., & Gifford, R. K.(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ic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Hamilton, D. L., Stroessner, S. J., & Driscoll, D. M. (1994). Social cognition and the study of stereotyping. In P. G. Devine, D. L. Hamilton, and T. M. Ostrom(Eds.), *Social cognition: Impact on social psychology*(pp. 291-321). Academic Press.
- Lim, R. G.(1995). A range-frequency explanation of shifting reference points in risky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3, 6-20.
- Parducci, A.(1984). Value judgment: Toward a relational theory of happiness. In J. R. Eiser(Ed.), *Attitudinal judgment*. New York: Springer-Verlag.
- Sagar, H. A., & Schofield, J. W.(1980).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90-598.
- Smith, R. H., Deiner, E., & Wedell, D. H.(1989). Intrapersonal and social comparison determinants of happiness: A range-frequen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17-325.
- Tajfel, H., & Wilkes, A. L.(1963). Classification and qualitative judg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4, 101-114.
- Taylor, S. E.(1981). A categorization approach to stereotyping. In D. L. Hamilton(Eds.),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pp. 88-11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The Effects of Representative Information of Groups and the Type of Social Comparison on Evaluations of Groups and Individuals: An Application of Range-Frequency Model

Woo-Young Chun and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epresentative information of groups and the type of social comparison on evaluations of groups and their individual members. Experiment showed that evaluations of the groups were based on the representative information of the groups. The statistical means of test scores of two target groups were made to be identical with each other. However, the group with a negative representative information was evaluated more negatively than the group with a positive representative information was. Depending on the type of social comparison, evaluations on individuals were different. In between-group comparison condition, the evaluations on individual members were assimilated to the impression of the group. Although target individuals from two different groups had an identical test score, the target person who belonged to the group with a positive representative information was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the target person who belonged to the group with a negative representative information. In within-group comparison condition, we examined the hypothesis that the evaluations of individual members would be contrasted to the evaluations of groups. The target individuals who belonged to the group with a negative representative information were expected to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the individuals who belonged to the group with a positive representative information.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The expected results were found only in the middle range of the test scores of the groups. Implications of the experiment on the study of stereotypes, evaluation, and happiness were discussed.